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심윤필 베르나르도, 황권희 클라라

다음주 독서: 한진 베드로, 신정임 도로테아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다음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이번주 미사해설: 김대진 하상바오로

다음주 미사해설: 김대진 하상바오로, 우명희 카타리나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제 1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 헌 금: \$ 176

교 무 금: \$ 540

감사 헌금: \$ 200

합 계: \$ 916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 분부터 미사 전 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토요 교리모임

격주 토요일 4시 성당 지하 친교실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오늘의 묵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의 ‘사랑의 상처’를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의 상처를 보여 주시며, 사랑이 어떤 고통이나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곧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이 사람들 곁에 다가온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의 먼지’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창세 2,7 참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창조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당신 ‘사랑의 숨결’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의 먼지가 숨 쉬는 인간이 되었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으로 흙의 먼지와 같은 존재가 주님 사랑을 새롭게 숨 쉬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비록 잘난 척하며 살고 있어도 그야말로 흙날리는 ‘흙의 먼지’입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숨 쉬며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주님께서 숨 한 번 거두어 가시면 먼지로 흩어지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을 호흡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살아 있어도 생명이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스 존델은 성령께서는 ‘성삼위의 경배하올 신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만나는 사랑의 불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불꽃은 우리가 숨 쉬는 사랑의 호흡으로 불꽃을 일으킵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우리가 주님 사랑의 숨결을 느끼고 더욱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는 날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성령 강림 대축일]

2011년 6월 11일

<제 1 독서> 사도행전, 2, 1-11

<제 2 독서> 코린토 1 서, 12,3 ~-7.12-13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나이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요한복음, 20, 19-23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 145 봉헌: 142 성체: 501 파견: 147



생명의 말씀

“평화는 용서의 무대 위에 올려지는 연주곡”

노란 프리지아가 아름다운 것은 하얀 안개꽃과 함께하기 때문이고 제주 유채꽃이 선명한 빛깔로 다가오는 이유는 검붉은 현무암 돌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듯, 삶이 아름다운 것은 상처가 미움의 덧에 간하지 않고 용서의 커튼을 드리우기 때문이고 높고 견고해지는 폭력의 장벽에 평화의 햇살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도 길이 있듯이 종잡을 수 없는 마음에 성령은 용서와 평화의 햇살로 특별한 은총을 친근한 일상이 되게 합니다. 미움과 폭력이 삶의 잔혹한 변주곡이라면 평화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무대 위에서만 올려지는 연주곡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평화와 용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평화와 용서는 성령의 이끌림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며 왜 평화와 용서를 연결시켜 놓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평화는 행복의 마당이고 용서는 그 마당에 들어서는 대문이지만 성령의 인도 하심 없이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정의라는 이름 아래 보복을 꿈꾸고 사랑과 자비의 환상만 심어준 채 창살 없는 감옥에 우리를 가두려 합니다. 용서라는 열쇠는 사용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해 평화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평화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선물이지만 과거에 묶여져 있는 마음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주어지는 현재의 축복이고 나만이 사는 길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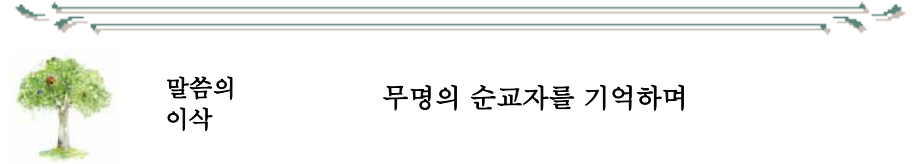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계시는 분”(마태 18, 20)이시기에 평화와 용서, 사랑과 자비라는 나라는 늘 ‘함께’라는 말을 떠나서 생각되어질 수 없습니다. 삶이 평화롭지 못하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늘 ‘함께’가 아니라 ‘나만’이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은 자신만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만의 두려움에 함께하기를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과 함께하면 쉬워지는 것이 용서이고 혼자서는 누릴 수 없지만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 삶이 미움 끝에 용서할 줄 알고, 비판 끝에 이해할 줄 알며, 질시 끝에 사랑”할 줄 아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것임을 안다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 버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공지사항

- 올해 성당 캠프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Pine Lake Camp에서 있습니다.휴가 계획 세우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캠프 계획은 사목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이야

무명의 순교자를 기억하며

몇 년 전 충청도 해미읍성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자할 때마다 그곳을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잔인하고 온몸으로 전율을 느꼈던 곳입니다. 조선 말기 지배 권력의 세도정치와 부정부패로 국정이 문란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던 시절, 민심을 달래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천주교 박해가 시도 때도 없이 진행되었고, 해미에서도 덕산, 함덕, 서산, 청양, 예산 등 충청도 서부지역의 수많은 천주학생이를 읍성에 잡아들여 옥에 가뒀습니다. 잡아들인 사람이 하도 많아 해미 진영장은 누가 천주학생이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중앙정부에 서는 천주학생이들을 즉시 처형하라고 달달하고... 그래서 진영장은 천주학생이들이 목주를 끄적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서 성문 앞에 목주를 놓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목주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풀어주고 피해 가는 사람은 성문 옆에 있는 물둑병에 처넣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물둑병은 옛날 가뭄에 대비하여 땅을 너비 15m, 깊이 5m 정도로 파서 말뚝과 술가지 등으로 엮어 옹벽을 세워 만든 우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문 앞에는 넓은 뜰이 있었는데, 인근 백성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특히 수많은 천주학생이 가족 들도 나왔습니다. 교우들이 하나하나 성문을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절규했습니다. “OO 아, 목주를 밟고 가, 밟아 밟아.” 무명 순교자께서 성문을 나서는 순간 사방에서 “OO 아, 밟아 밟아.”라는 절규가 들렸습니다. “오 천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절규하는 부모, 자식, 아내, 남편, 형제, 친척들의 눈을 보면서 목주에 입을 맞춥니다. “저놈을 물둑병에 처넣어라.” ... 무명순교자들이 목주에 입맞춤했던 행위는 세상의 복음화에 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따르겠다는 표징입니다.

신앙의 증거인 순교자의 삶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 직업은 출판입니다. 책을 펴내는 일이지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어떤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하는가,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등을 밝혀주는 것이 책을 내는 이유입니다. 결국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책을 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획된 것을 실천하려면 필자 선택, 번역자 선정, 발행 시기 결정, 편집자의 역량, 전국 영업망 확보, 광고 및 마케팅 문제, 확실성 결여, 디자인 선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날수록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적당히 그 시대의 유행이나 세대별·성별 등의 관심사에 편승하면서, 적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요. 적당히 하면 책을 통한 복음화가 가능할까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힘들면 목주도 밟고, 다시 고해성사하고, 안락에 안주하면서요?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글을 사용하는 출판인으로서 책을 펴내면서 사랑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주에 입을 맞추어 죽음을 택한 무명의 순교자를 기억하며 마음을 추스릅니다.

이건복 프란치스코 | 출판인